

광주·전남상공인연합-사모투자전문회사, 光銀 공동인수 추진

지역금융권 “지방은행 역할 제대로 할까” 우려

수익우선에 경영 불안·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도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 국내 대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PEF)를 GP(무한책임사원)으로 선정하고, 광주은행 공동인수를 추진한다. 하지만 투자수익극대화라는 사모펀드의 본질적 특성상 경영 불안 가능성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재정부문을 책임질 경우 지역은행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16일 광주 상의 회의실에서 지역 상공인연합 출

자와 권경훈 큐캐피탈파트너스 회장, 유은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PEF(사모투자펀드) 설립과 투자금액 조달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설립되는 금융주력 PEF의 GP로 재무적 투자자 유치와 투자금액 조달, 광주은행 인수 이후의 PEF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 10여개가 넘는 사모투자회사 가운데 9위 규모인 큐캐피탈파트너스는 국민연금 등 대형 투자자를 다수 확보, 1조1133억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

당하는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적격 GP를 확보하게 돼 금융주력 PEF의 개별투자자(LP)라는 적법한 인수구조로 최종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자금 동원력을 갖춘 대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가세함으로써 자금조달 능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역 금융권에서는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 큐캐피탈파트너스와 광주은행 공동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다. 한 지역 금융계 관계자는 “광주은행 공동인수를 추진하는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사모펀드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 불안의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상공인은 “광주상공

회의소가 우리사주 형태의 광은노조와 각각의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주체가 하나로 모여서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광주상공회의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GP선정에 대해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상공인연합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수기준을 충족하고 자금조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는데 투자유치 경험과 M&A 노하우가 풍부한 큐캐피탈파트너스를 GP로 확보함으로써 돌파구를 찾게 됐다”며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냉정하게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은 연대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현

재는 우선협상자가 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지 모양새 갖추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큐캐피탈파트너스 관계자는 “현재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실적이 좋지만 시장의 가치평가는 최저점에 놓여있다”며 “광주은행을 인수할 적절한 인수타이밍인데다 지역 밀착경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자신이 있어 인수전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인수전에는 16일 단독입찰을 포함한 DGB금융지주를 제외한 BS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 광주·전남상공인연합,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 등 5군데가 참여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T 회장에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내년 1월 주총서 공식 선임



고, 서울대 전기
공학과, 동 대학
원을 졸업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1994년 세계 최

초로 256MB D

램을 개발했으며 반도체 메모리 용량
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반도체 전문가

다.

CEO 추천위는 이날 황창규 전 삼
성전자 사장외에 권오철 SK하이닉스
고문,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정보통신부 차관), 임주환 고려대 교
수(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4명
을 놓고 면접을 실시한후 황 전 사장

을 낙점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브릭스’ 시장점유율 역대 최고 눈앞

〈중·러·브라질·인도〉

지난달까지 234만대 판매 10.9% 기록

현대·기아자동차가 브릭스(BRICs) 4개국에서 역대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전망이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4개국 시장에서 각각 164만2418대와 70만7501대를 팔았다.

양사를 합친 판매량은 234만9919대이며 시장점유율은 10.9%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장점유율은 작년보다 0.7%포인트

오른 것일 뿐 아니라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달 실적에 따르면은 연간 점유율 11%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의 브릭스 시장 점유율은 2007년 7.5%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서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메이커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올해 1~11월 143만1850대를 팔아 점유율 10.5%를 기록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현대차의

지 공장 가동과 함께 판매가 급신장했다. 올해 1~11월 21만7436대를 판매해 작년 전체 판매량(14만9510대)을 이미 크게 넘어섰다. 현지 맞춤형 모델인 HB20이 11만1000여대 팔리며 실적을 견인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은 6.7%까지 올라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러시아 시장의 점유율은 13.9%로 2006년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고, 인도 시장은 현지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작년(14.7%)보다 높아진 15.4%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원발굴 통한 지하경제…’ 최고 영예

광주세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아이디어 공모전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홍구)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 최고 영예는 광주 세관 통합정보분석 T/F팀 ‘세원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지원’(우수사례)과 목포세관의 ‘유통이

력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식탁안전 확보’(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지원’ 사례는 부서(기관)간 간막이제거 및 분야별 전문가 협업을 통하여 산재된 정보를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인 분석·가공으로 과세가격 누락세액을 약 79억원 추징한 성과를 창출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새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성공사례를 발굴, 공감대를 통해 향후 3.0의 가치를 세관행정에 정착키 위해 마련됐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기관)간 간막이제거 및 분야별 전문가 협업을 통하여 산재된 정보를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인 분석·가공으로 과세가격 누락세액을 약 79억원 추징한 성과를 창출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61.15 (-1.76)

코스닥지수

488.19 (-6.17)

금리 (국고채 3년)

2.92% (-0.04)

원·달러 환율

1051.50원 (-1.10)



겨울철 보양식 매생이·굴 선보여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식물성 고단백 식품인 매생이와 겨울철 보양식 굴이 선보였다. 이날 매생이는 350g 1묶음에 7500원, 굴은 1kg당 1만6000원에 판매됐다.

/광주롯데백화점 광주점

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250만장 돌파

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가 누적 발급 수 250만장을 돌파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9일 기준 이와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3월 26일 최초로 체크카드 상품을 출시한 뒤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만큼 서비스 부문에서 차별화를 시도한 점이 MG체크카드의 성공 비결이다.

▲MG라이프 체크카드는 할인서비스를 ▲MG포인트 체크카드는 결제 금액의 0.3%를 적립해 주며 ▲포유(Foru) 체크카드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1~200원의 할인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해준다.

또 지난 6월에는 통신이나 병원, 약



국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N 체크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IN체크카드는 발급 5개월여 만에 40만장 이상을 발급해 빠른 속도로 체크카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신상품을 선보이며 신용카드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홍삼은

복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신지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